

석유공사, 석유기업 Addax 인수 추진

이라크서 하루 4만배럴 생산·수출 ... 중국 CNPC·Sinopec과 경쟁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한국석유공사가 스위스의 석유기업 Addax Petroleum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6월12일 정부와 석유공사, 외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Addax Petroleum 및 생산자산 인수를 위해 최근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ddax Petroleum은 서아프리카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생산하고 있으며 타크타크 유전에 서 하루 4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6월 초부터 수출하고 있다.

Addax Petroleum의 주식은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동시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은 31억파운드(약 6조4000억원) 수준이다.

석유공사도 쿠르드 지역에서 광권을 확보해 10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며 Addax의 타크타크 유전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시작단계여서 실제 M&A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석유공사 외에도 CNPC, Sinopec, CNOOC 등 중국 석유화학기업도 Addax의 잠재적 매수자로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2>